

11

Nov.
2019

지퍼 월간리포트

CEO 레터

No.1 이달의 ZPER 소식

1. 스프레딧 정식 서비스 출시 일자 변경 확정
2. 지퍼 디앱명 확정 '쇼잇(Showit)'... '인증과 보상 기반의 P2P 투자 커뮤니티'
3. 해시그램, SCF 공동 사업 착수

No.2 이달의 ZPER 얼라이언스 소식

1. 위펀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 모우다, 투자자 보호 기금 '메디세이프' 적용

No.3 이달의 P2P 금융 & 블록체인 소식

1. P2P 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구체적 시행 일정 확정'
2. 금융권, 핀테크 협업 자발적 확대

CEO 레터

Nov.
2019



안녕하세요. 지퍼 대표 김준범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한 달 남짓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스프레딧의 리뉴얼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해시그램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스프레딧(SPREADIT)과 쇼잇(Showit) 두 가지입니다. 스프레딧은 간편한 분산투자 서비스이며, 쇼잇은 투자 인증과 공유 기반의 커뮤니티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표면적으로 각각 분산투자자와 투자 정보 제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P2P 투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P2P업체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프레딧과 쇼잇을 탐침봉으로 활용해 P2P 투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P2P 업체의 관리 능력 및 상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따른 실제 투자 결과를 유추하는 근거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별 투자 상품 내역 등을 통해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도 및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P2P 투자 통합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프레딧과 쇼잇의 사용자 및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는 '비어 있는' 정보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지퍼 토큰이 하나의 인센티브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P2P 금융은 제도권으로 편입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P2P 투자 시장 역시 제도권 금융화를 맞아 양질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투자 데이터에 대한 수요 역시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스프레딧과 쇼잇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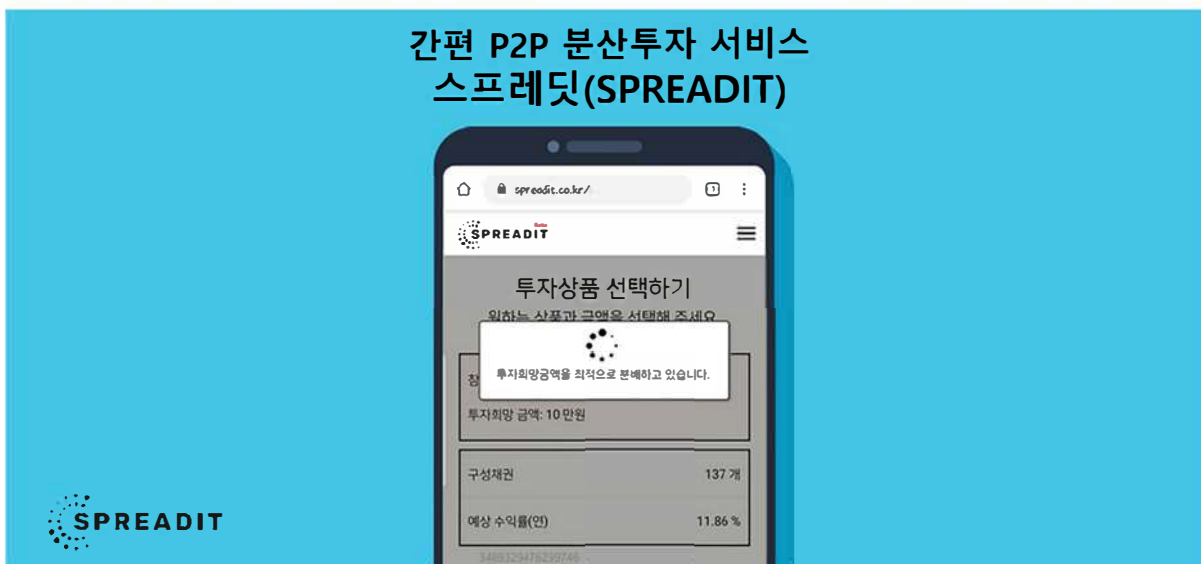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더욱 개선된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1 이달의 ZPER 소식

Nov.
2019

스프레딧 정식 서비스 출시 일자 변경 확정



■ 스프레딧 정식 서비스 출시 일자 안내

간편 P2P 분산투자 서비스 '스프레딧(SPREADIT)'의 정식 버전 출시 일자가 변경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11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스프레딧의 정식 버전 출시가 서비스 기능 개발 및 개선, UI 디자인 리뉴얼 작업으로 인하여 오는 12월 1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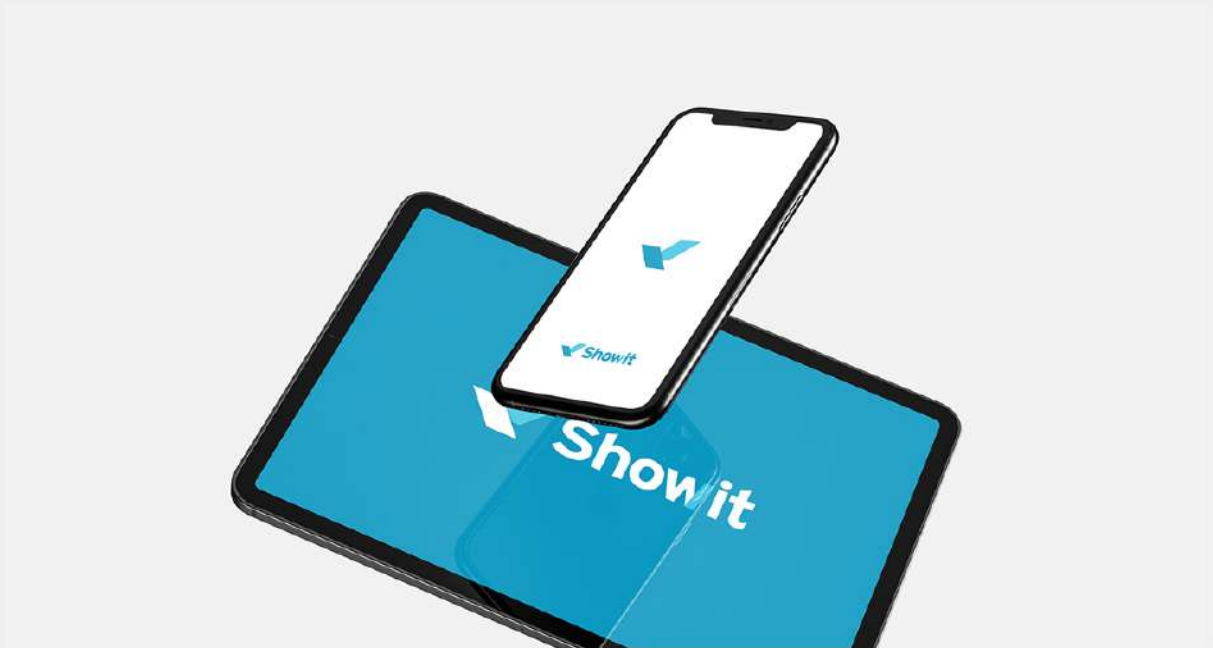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개선 요청과 의견을 전해주셨던 스프레딧의 UI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효용성 부각과 편의성 제고를 중심 목표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 스프레딧 주요 개발 및 개선 사항

- 예치금 변동 내역 조회 기능: 업체 및 항목 별 조회 가능
- 예치금 출금 신청 기능: 업체 별 출금 신청 가능
- 예치금 충전 계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가능
- 투자 취소 기능: 모집 중인 상품에 한해 투자 취소
- UI 디자인 리뉴얼

더불어 향후 스프레딧의 신규 회원 가입, 투자 실행 등의 주요 지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readit.co.kr>



지퍼 디앱명 확정 '쇼잇(Showit)' ... '인증과 보상 기반의 P2P 투자 커뮤니티'

인증과 공유, 보상 기반의 P2P 투자 커뮤니티인 지퍼 디앱(DApp)의 이름이 확정됐다. 최근 많은 논의를 통해 확정된 이름은 '쇼잇(Showit)'으로, 타인과 P2P 투자 내역 및 상환 내역 등을 공유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전한 의견 교류, 데이터 기반의 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앞서 출시된 간편 P2P 분산투자 서비스 '스프레딧(SPREADIT)'과 동일한 어미(-it)를 활용해 향후 지퍼 토큰을 활용할 다양한 서비스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쇼잇 이용자들은 가입 후 사진,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자신의 P2P 투자 내역을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정보에 대한 평가(좋아요/싫어요) 및 댓글 등의 소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공개 인증한 상품을 업체 및 키워드, 카테고리 별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이용자들의 수요와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쇼잇의 운영을 통해 그동안 개별 P2P 금융 업체와 투자 회원만 보유하고 있던 실제 P2P 투자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통합 구축될 예정이다. 더불어 포인트 보상 제도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발적 인증과 교류를 활발히 유도, 향후 P2P 투자자 혹은 관심 있는 이들의 필수적 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시그랩, 대형 핀테크사와 공동 사업 착수 ... 'SCF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최근 해시그랩이 국내 대형 핀테크 업체와 함께 SCF(공급망금융) 사업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선정산채권으로 잘 알려진 SCF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입점 업체 등으로 대표되는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 시점 이전에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플랫폼의 긴 정산 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판매대금 정산 및 공급망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선정산 방식은 최근 온라인 커머스, 공유 경제 등의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발달된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시그랩은 블록체인 및 P2P 금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번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핀테크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향후 양사는 지퍼 토큰의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2

Nov.
2019

이달의 국내 ZPER 얼라이언스 소식 위펀딩 / 모우다



위펀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지난 12일 부동산 전문 P2P 금융사 위펀딩(대표 이지수)이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19 벤처창업 진흥 유공포상' 청년 기업인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장관 박영선)을 수상했다. 위펀딩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던 도시 재생 프로젝트, PF 프로젝트 상품 등을 출시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활성화와 기술 금융, 자산관리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위펀딩은 최근 누적대출액 650억원을 돌파했으며 기술 기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투자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지수 대표는 "그동안 우량 부동산은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조차 접할 수 없었다. 이번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누구나 쉽고 투명하게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http://bit.ly/3390KY2>



모우다, 투자자 보호 기금 '메디세이프' 적용

지난 14일 메디컬 전문 P2P 금융사 모우다(대표 전지선)가 지난 14일 투자자 보호 기금인 '메디세이프(MediSfe)'를 첫 적용한다고 전했다. 메디세이프 적용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된다. 모우다는 초기 재원 1억원과 메디세이프 적용 상품 대출 금액의 1%를 매월 말 적립, 별도로 관리해 기금을 조성해왔다. 또한 모우다는 메디세이프 출시 이후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현황 및 잔액 증명을 공시해왔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메디세이프 기금 총액은 약 1억 9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선 대표는 "이번 적용 이후에도 메디세이프 잔액 기준 보호율이 3.6%에 달한다"라며 "메디세이프는 심사와 채권관리 기법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전했다.

<http://bit.ly/2D0SL5o>



P2P 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 '구체적 시행 일정 확정'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 금융법)'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다. P2P 금융법은 오는 26일 공포돼, 9개월 후인 오는 2020년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 업체의 시장 진입 및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P2P 금융 업체는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P2P 금융 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불어 무분별한 P2P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분리보관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P2P 금융 업체의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다.

<http://bit.ly/2qoeFMT>



금융권, 핀테크 협업 자발적 확대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핀테크(Fintech)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내에서도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동반자로 나아가는 추세다. 금융사들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인프라, 투자, 사업화,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금융사 핀테크 랩을 통해 배출된 스타트업은 지난 2018년 기준 353개에 달한다. 신한금융은 '신한퓨처스랩'을 출범, 올해는 이를 확대 개편해 입주 기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재출범 선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 기업 금융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은 '핀테크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은행권에서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http://bit.ly/2QDuCcu>